

# 동화 속의 신학

C.S.루이스의 기독교적 내러티브1)

추태화 2)

## 1. 들어가며

20세기에 손꼽는 기독교 사상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C. S. 루이스를 지목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sup>3)</sup> 이에 걸맞게 루이스는 다방면에 걸쳐 자신의 세계를 확대하였는데 예를 들면 그를 수식하는 직함은 교수, 중세문학 연구가,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비평가, 변증론가, 연설가 등 다양하다. 그의 자리는 기독교 문학을 논하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였는데 루이스의 기독교성(Christianity)은 그의 나이 30세에 체험하였던 회심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루이스의 내적 방향은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

---

1) 본 논문은 1999.11월 총신대에서 열린 한국 C. S. 루이스학회 창립총회 시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 일러두기: 본문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다음 책의 인용면을 나타냄. 『사자와 마녀와 옷장』, 전경자 역, 서울: 열린 1997(6쇄)

2) 숭실대/안양대 강사

3) Alister McGrath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10인』(원제: *A Cloud of Witness. Ten Great Christian Thinkers*, 신재구 옮김)에서 루이스를 지목하고 있다. 또한 리처드 포스터는 『신앙 고전 52선』(원제: *Devotional Classics*)에서 루이스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서술한다. "C. S.루이스는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다..... 루이스는 죽은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세기의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21.

다음과 같은 저서(『20세기의 기독교 작가』)에서도 루이스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Mann, Otto (hrsg.): *Christliche Dichter im 20. Jahrhundert. Beiträge zur europäischen Literatur*, 2.Aufl. Bern, München 1968.

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당시 9살이었던 루이스는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자라왔기에 어머니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어린 루이스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끝내 '신의 부재'를 느꼈던 것이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I was taken into the bedroom where my mother lay dead.. Grief was overwhelmed in terror... My mother's death ... as my first religious experience."<sup>4)</sup>

사상가로서 루이스는 냉철한 인식의 소유자였다. 그는 철저히리만큼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 내면정신의 변천을 진단하였다. "지적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왔다. 통속적 현실주의에서 철학적 이상주의로, 이상주의에서 범신론으로, 범신론에서 일신론으로, 일신론에서 기독교로 변모해 왔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아주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길을 밟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5)</sup>

루이스는 회심 후 자신의 글쓰기에 변화가 온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글쓰기를 소명(Calling)과 연관시킨다.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에서 작가는 말한다.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로 나는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sup>6)</sup>

루이스는 회심을 통하여 내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창작생활에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기독교적 글쓰기, 즉 루이스의 기독교 문학은 회심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글은 루이스가 이루어 놓은 문학적 세계 속에서 동화라는 장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나르니아 연대기』는 동화이다. 동화의 모티브는 오랫동안 루이스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4)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 p.20.

5) 『순례자의 귀향』, p.13.

6) 『순전한 기독교』, p.4.

집의 추억,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루이스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현실에 대한 초월적인 관찰이 한데 융해되어 나타난 작품이 그것이다.<sup>7)</sup> 그가 이 동화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루이스 전 기작가는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사물의 기독교적 존재 방식에 대해 유추하기” 위해서였다.<sup>8)</sup>

『나르니아 연대기』는 독자(어린이)들을 위한 몇 가지 윤리적인 기본 덕목을 제공하고 있다. 작품의 저변에는 모험심, 권선징악, 악과의 싸움, 정의로운 삶, 협동심, 상상력 등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함께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는데 특히 구원론은 문학적 상상력의 옷을 입고 루이스 동화를 더 흥미 있게 만들었다.<sup>9)</sup> 본고는 그의 『나르니아 연대기』 중 『사자와 마녀와 옷장』(1950, 이하 『옷장』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루이스의 기독교성이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독교적 내러티브의 모색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네 명의 어린이(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가 옷장을 통해 들어간 나르니아라는 나라에서 겪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처음 발견한 나르니아는 온통 눈으로 싸여있는 추운 겨울의 나라

7) 철학적 논리를 갖춘 사상가답지 않게 루이스는 현실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하고 있다. 신화(Myth)와 주관성(Subjectivity)에 대한 경도, 플라톤적 이데아론, 그림자(Shadowland)로 비유되는 현실세계 등이 그것이다. 동화는 루이스의 그런 내적 세계를 표현하는 적절한 매체였다. 나르니아와 등장인물,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들은 바로 그런 ‘영원한 것의 현실투영’이라는 상상력을 현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Clyde S. Kilby, *The Christian World of C.S. Lewis*, 양혜원 옮김, p.172.

9) 루이스는 나르니아 연대기가 반드시 기독교적 비유(Christian Allegory)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쓴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내적 상상력은 많은 부분에서 이에 상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슬란은 그리스도도의 비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cf. Christian Rendel, *C.S. Lewis*, pp.154-155.

였다. 그 나라 주민들은 다양한 동물이었었는데 이들은 말을 할 줄 알았다. 튼누스와 비버는 나르니아는 마녀에게 지배당한 이래 겨울만 있어 왔으며, 크리스마스가 올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전해주었다. 언젠가 아슬란이 돌아오면 겨울에서 해방될 것이란 말과 함께.

온다던 아슬란이 돌아오면서 눈이 녹고 겨울이 끝났다. 그러나 아슬란은 한 어린이를 구해주기 위해 마녀의 권력에 몸을 맡긴다.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슬란은 자기의 목숨을 주었다. 얼마 뒤 아슬란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과 함께 승리의 함성이 울리고 마녀와 그 잔당은 멸망당한다. 네 명의 어린이는 왕과 왕비가 되고 나르니아를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가 된다. 그 사이에 아슬란은 다시 자취를 감춘다.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긴 채.

## 2.1 선과 악의 알레고리

권선징악은 거의 모든 동화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옷장』은 그러나 권선징악의 교훈적 메시지를 전면에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것은 작품 속에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윤리의식은 설명되지 않고 사건과 인물들의 행동으로 형상화되는 거대한 구원과정 속에 녹아 있다.

『옷장』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선과 악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의 형상으로 동화에 등장하는 것은 '흰 마녀'(The White Witch)이다. 마녀는 모습과 성격에서 한 눈에 나쁜 자임을 알게 한다. "바로 그런 생각에서 자칭 여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결코 하와의 딸이 아니예요..... 그 여자의 조상은 당신들의 선조 아담의..... 아담의 첫 부인 라일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같은 집안인데, 마녀 중의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흰 마녀의 한쪽 조상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조상은 거인이예요. 인간은 절대로 아니예요. 흰 마녀의 몸 속에는 인간의 피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 마녀는 속속들이 악한 거라구요.”(66)

마녀를 처음 만난 에드먼드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오만함과 도도한 모습을 간파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에드먼드를 마녀는 곱게 보지 않는다.

“여태까지 에드먼드가 보아온 여자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어마어마한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목까지 오는 흰 털옷으로 몸을 감고 있었다. 오른 손에는 길고 곧은 금지팡이를 들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하얀 얼굴은 그냥 창백한 빛이 아니라, 흰 눈이나 종이나 혹은 케이크 위에 얹는 흰 설탕처럼 그렇게 새하얀 색이었는데, 입술 색만은 새빨간 빛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거만하고 냉정하고 가혹한 인상을 주었다.”(28)

나르니아에 간 루시가 처음 만난 반인반양 톰누스는 마녀의 포악한 성격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마녀는 내 꼬리를 잘라 버리고, 뿔은 톱으로 쓸어버리고, 수염도 뽑아 버리고,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내 아름다운 발굽을 딱딱하고 보기 흉한 말발굽으로 변하게 할 거예요. 그 뿐인 줄 아세요? 만약 정말로 무섭게 화가 나면 나를 돌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흰 마녀의 무시무시한 집에서 석상이 된 채.....”(19)

게다가 마녀는 나르니아를 지배하기 위해 요소 요소에 첩자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숲의 나무들까지 마법을 걸어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었다. 톰누스의 말, “숲 속에는 ‘그 여자’의 첩자들이 우글우글해요. 나무들 중에도 그 여자 편인 나무가 있을 정도예요.”(20)

또한 마녀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에드먼드를 속인다. “난 네 예쁜 형제들을 꼭 보고 싶어. 너는 왕자가 되게 해 주마. 그리고 나중에는 왕으로 만들어 주지. 그건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러나 너에게는 신하들과 귀족들이 필요해. 그러니 네 형은 공작으로, 네 누이들은 여공작으로 만들어 줄 생각이다.”(34)

마녀는 사탄의 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지독히 나쁜 사람이야. 자칭 나르니아 여왕이라고 하지만, 실은 여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

람이래..... 모두가 그 흰 마녀를 아주아주 싫어한대. 그리고 흰 마녀는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별의별 끔찍한 짓을 다 할 수 있대”(37).

악은 다음으로, ‘겨울’이라는 계절로 표상된다. 겨울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추위를 몰고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계절로 상징된다. 겨울은 마녀가 부리는 마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나르니아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그 마녀 말이에요 나르니아에 늘 겨울만 있는 것도 다 그 마녀가 한 짓이에요 항상 겨울이고 크리스마스는 한 번도 없고, 그걸 좀 상상해 봐요”(18, cf. 37)

세 번째 악의 형상화는 마녀와 같이 행동하는 무리들로서 악한 자들의 속성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마녀가 시키는대로 하면서 마녀를 시중든다. 그들은 한결같이 험상궂은 외모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인들, 늑대 인간들, 시체를 먹는 귀신들, 생명들, 공포스러운 동물들, 작은 요정들.....” 등등이다.<sup>10)</sup>

## 2.2 구원의 비유

네 명의 어린이들은 나르니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싸우게 된다. 착한 톰누스가 잡혀가고 마법에 의해 많은 동물들이 돌상으로 변했다. 또한 나르니아 전체가 겨울로 휩싸여 있었고, 게다가 친구인 에드먼드가 마녀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들도 역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가 이다. 이 때 아슬란이 등장한다. 아슬란은 나르니아에 그 동안 예언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상이었다. “아슬란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찌면 이미 도착했는지도 몰라요”(59)

10) Clyde S.Kilby, p.182.

“이슬란이 나타나면 불의가 물러가고  
 이슬란이 노호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이빨을 드러내면 겨울이 떠나가고  
 갈기를 뒤흔들면 새봄이 찾아오네”(67)

이슬란의 등장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했다. 겨울이었던 나르니아는 이슬란이 옴으로 인하여 ‘봄’을 맞게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슬란이라는 말에 모두들 봄소식처럼 좋은 소식과도 같은 그 신기한 느낌을 다시 한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67)

이슬란은 나르니아를 구원할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오로지 이슬란밖에 없어요. 가서 그를 만나야만 해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73)

### 3. 동화적 상상력과 메시아 상

위에서 보았듯 『옷장』은 선과 악의 구도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대립은 결국 마녀와 이슬란, 마녀의 추종자들과 이슬란의 추종자들로 나뉜다.

나르니아를 구원하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네 명의 어린이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이슬란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르니아의 구원자는 이슬란임에 틀림없다. 이슬란 그는 누구인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물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못박을 필요는 없다. 원작자인 루이스도 독자들이 처음서부터 ‘이슬란은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도식적 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반겨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은 오히려 기대하였던 것이다.<sup>11)</sup>

11) “이슬란은 알레고리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한 가공의 인물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상상력적이 담긴 대답을 해주게 된다. 만약 나르니아와 같은 공간이 있

“이슬란은 왕이에요 이 숲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 아버지 때에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이슬란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르니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슬란이라면 흰 마녀쫓은 쉽게 처치할 수 있어요 톱누스 씨를 구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슬란이에요.”(67)

### 3.1 사자의 의미

나르니아를 구원하러 온다는 전설 속의 이슬란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슬란은 바다 황제의 아들이자 숲의 왕이에요 짐승들의 왕이 누구지도 모르나요? 이슬란은 사자예요 - 위대한 사자, 유일한 사자예요.”(68)

또한 “황금빛 갈기와 근엄하고 당당하고 거대한 압도적인 두 눈”(105)을 가진 사자였다.

구원자 이슬란이 여러 동물들 가운데서 왜 굳이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일까. 그것이 작가적 상상력의 우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에는 루이스의 뇌리를 흐르고 있는 기독교 영성이 너무도 선명하다고 본다. 사자는 구약에서 여러 의미로 쓰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왕의 권위나 한 집단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 의미체계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칭호가 되기도 하였다.<sup>12)</sup>

다면, 그곳에서 그가 육체가 되기로 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면, 마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랬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르니아에서는 하였을까?” Christian Rendel, p.155.

12)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자: 잠언 30:29-31.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지도자를 상징하는 사자: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쫓고 올라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계 5: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 3.2 메시아의 오심

마녀가 마법을 건 후 나르니아는 내내 겨울이었다. 그러나 나르니아의 사람들은 이슬란의 등장과 함께 마법에서 풀리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이슬란이 왔고, 당신들 또한 이 곳에 있으니 마녀의 시대가 곧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69)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지시 시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다. 나르니아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기쁨을 선사한 것은 바로 성탄, 즉 구원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장면이다. “성탄을 축하한다! 참된 왕 만세!”(91)<sup>13)</sup>

이슬란은 마녀의 권세를 꺾으므로 겨울을 몰아내고, 나르니아에 봄이 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건 눈이 녹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봄’이에요. 이제 우린 어떡하죠? 여왕님의 겨울은 끝난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이슬란의 짓입니다.”(101)

### 3.3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나 이슬란은 마녀의 유혹에 빠져있던 아담의 아들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 마녀와 협상을 벌인다. 둘의 내용은 그들만의 비밀로 지켜졌다. 다른 이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이슬란을 도울 수도 없었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놀랍게도 이슬란의 고난으로 이어졌다.<sup>14)</sup>

13)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사상을 연상케 한다. cf. 이사야 42:7.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들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복음 2:10. “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 cf. 이사야 53장.

“이슬란은 별로 말이 없었고, 얼굴에는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다.”(120)

“고개를 수그리고 꼬리를 축 늘어뜨린 그는 몹시 피곤한 듯이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다.”(122)

이슬란의 변화는 아이들이나 나르니아 사람들을 당황케 하였다. 구원자 이슬란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거기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애원한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제발... 저희들도 함께 데리고 가 주세요 - 어디를 가시든지 말이에요.”(123)<sup>15)</sup>

이슬란이 돌 탁자를 향해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은 마치 겐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오늘밤은 친구가 몹시 그리울 것 같구나..... 그래, 따라와도 좋다. 다만 내가 그만 따라오라고 말할 때는 꼭 내 말을 듣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때부터는 난 혼자 가야만 한단다.”(123)

“몹시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손을 내 갈기 위에 올려놓으렴.”(123)

그리고 적들에게 몸을 맡긴 이슬란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sup>16)</sup>

“이슬란에게 들진한 마녀들은 그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그리

15) 마태복음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버리지 않겠나이다.”

16) cf. 이사야 53장. 특히 다음절 참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5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6절).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8절). cf. 마태복음 26, 27장.

나 아슬란은 적들이 그를 잡아당기고 뒤틀면서 그의 몸을 살이 묻어 나올 만큼 심하게 꽉 졸라 묶어도 신음소리 하나 내기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슬란을 바위 탁자로 질질 끌고 갔다.”(125)

“바보가 왔다! 바보가 드디어 나타났어! 즉시 꿩꿩 묶어라!”(124)

“이제 보니 그냥 커다란 고양이여 지나지 않잖아!”(125)

“야옹아, 야옹아! 불쌍한 고양이 새끼 같으니라구! 오늘은 생쥐를 몇 마리나 잡아먹었냐? 야옹아, 접시에 우유를 좀 담아줄까?”(126)

“그러나 아슬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리들이 겹겹으로 아슬란을 둘러싸서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126)<sup>17)</sup>

### 3.4 대속의 죽음

나르니아에 온 네 명의 어린이 중 에드먼드는 마녀의 터키 사탕에 그만 유혹받았다. 에드먼드를 마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슬란은 진지하게 협상을 벌였다. 나르니아의 그 누구도 이 협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슬란은 언덕을 올랐다. 아담의 아들과 하와의 딸들도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로 작정했던 것이다.<sup>18)</sup>

“그래, 이제 누가 이겼지? 네가 이렇게 하면 인간 반역자의 목숨이 구해질 줄로 알았느냐? 바보 같으니라구! 이제 난 우리 둘의 협정에 따라 그 아이 대신 너를 죽일 것이고..... 너는 네 자신의 목숨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해라. 그리고 죽어가라!”(127)

17) cf. 마태복음 27:29 이하. “.....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가로되..... 회롱을 다한 후.....”

18) cf.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모두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이 싸움의 끝을 마무리짓겠다! 이제 저 거대한 바보, 저 거대한 고양이(가)가 죽었으니 벌레 같은 인간들과 반역자를 밝아 없애는 일은 시간 문제다.”(129)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죽었던 것처럼 아슬란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슬픔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비슷하다.

“뭉친 채 죽어 있는 거대한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슬란의 차디찬 얼굴에 입을 맞추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그의 아름다운 털을 쓸어 주면서 끝없이 울었다.”(129)

### 3.5 부활

나르니아 사람들은 아슬란의 죽음으로 깊은 절망감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망의 순간이 돌아온 것이다. 동화는 이렇게 극적 전환을 시도한다. 그것은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부분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모습이 나르니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등뒤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다 - 마치 거인이 거대한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것같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다.”(132)

“그러다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바위 탁자가 끝에서 끝까지 두 조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으며, 아슬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132)<sup>19)</sup>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고난과 치욕은 이제 지나고 환희의 부활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나르니아에서는 이렇게 보였다.

19) cf. 마태복음 27: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곳에는 아침 햇살 아래 찬란히 빛나는 이슬란이 전보다 더욱 거대한 모습으로 (그 동안 다시 자라났음이 분명한) 갈기를 흔들며 서 있었다.”(132)

“이슬란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는 그들의 놀라움이란 반가움 못지 않게 컸다.”(132)<sup>20)</sup>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르니아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었나요?”

“이제 다시 살아났단다.”(132)

“차마 ‘유령’이냐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133)<sup>21)</sup>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실이 나르니아 사람들의 입에서 한 고백이 되어 나온다.

“당신은 정말이에요, 정말 살아 계세요!”(133)<sup>22)</sup>

### 3.6 승리와 승천

이슬란이 마녀를 이긴 것은 나르니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것은 계시되지 않은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배신 행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배신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바위 탁자가 깨어지고 죽음 자체가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희생자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133)

그렇게 해서 나르니아에 승리가 찾아온다.

“결국 그 모든 악독한 무리들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20) cf. 요한복음 20:20. “.....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cf. 누가복음 24:11.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22) cf. 마태복음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훌륭한 법을 만들어 평화를 유지했으며.....”(150)

나르니아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아슬란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다. 아슬란은 그들 곁을 떠난다.

“아슬란 자신은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149)

“그는 얽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르니아 외에도 돌보아 주어야 할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150)

#### 4. 기독교적 내러티브의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슬란을 중심으로 한 나르니아 구원작전은 성경에 예언되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슬란이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가 원형(Archetype)이 된다 하겠다.

##### 4.1 내러티브 인의 성경적 인유(引諭)<sup>23)</sup>

1) 나르니아에서 루시를 처음 본 톰누스 씨는 그녀를 “하와의 딸”(14, 15)이라고 부른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 비버씨가 아슬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묘사. “아슬란이 노호하면...”(67)

호세아 11장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23) 성경적 인유(Biblical Allusion)

3) 이슬란의 등장으로 전개되는 상황 변화. “이슬란이 노호하면 슬픔이 사라지고.....”(67)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4) 아이들을 칭하는 호칭. “아담의 아들(Adam’s flesh)과 아담의 딸(Adam’s bone)이 / 캐르 파라벨 왕좌에 앉는 날...”(69)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bone of my bones)요 살 중의 살(flesh of my flesh)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5)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피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은 “뱀 패 하나와 긴 칼 한 자루”(90)였다.

에베소서 6장 16-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라”

6) 에드먼드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을 향해 하는 이슬란의 권고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114)

이사야 65장 16절 b: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7) 이슬란이 마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때 한 말. “마녀는 강한 마법을 알고 있지만, 실은 그녀가 모르는 더욱 강한 마법이 있다. 마녀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태초까지 밖에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마녀가 태초 이전의 정적과 어둠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면, 그곳에는 다른 마법의 주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133).

고린도전서 2장 6-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 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이슬란이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갈 때 한 말. “몹시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손을 내 갈기 위에 올려놓으렴.”(123)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9) 마녀의 추종자들이 이슬란을 조롱하는 장면. “온갖 조롱을 하면서 이슬란을 놀려댔다.”(126)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10) 이슬란의 사라짐에 대한 추측. “뿐만 아니라 나르니아 외에도 돌보아 주어야 할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150)

요한복음 10장 16절 a: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 4.2 기독교 문학의 가능성

렌들의 관찰에 의하면 성인 독자의 경우에는 이슬란과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쉽게 발견치 못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어린이 독자에게서 이슬란-그리스도의 비유적 성격이 파악되었다. 한 어린이 독자에게



루이스가 쓴 편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sup>24)</sup>

“이슬란의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네가 직접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이 우리 세계에 주어진 적이 없었을까? 1) 산타클로스가 오던 날에 탄생했던 그 사람, 2) 위대한 왕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 3) 악하게 행동한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죽으셨던 그 사람, 4)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그 사람, 5) 종종 희생양으로 표현되었던 그 사람, 정말로 이 세상에 계셨던 그 분의 이름을 모르겠니? 생각해 봐 그리고 나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회심은 루이스에게 글쓰기의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루이스는 여러 저술에서 그의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기능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루이스가 지향했던 기독교 문학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다음 인용은 루이스가 추구하는 기독교 문학의 정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귀중한 잣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로 나는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sup>25)</sup>

“나는 ‘나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의 과거에나 지금이나 항상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순전한’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책은 다른 점에서는 흠이 있지만 최소한 하나의 순전하고 일치되고 일반적인 기독교를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본다.”<sup>26)</sup>

24) 1953년 6월 3일 루이스가 어린 독자에게 보낸 편지. Christian Rendel, p.154에서 재인용.

25) 『순전한 기독교』, p.4.

26) 위의 책, pp.5-7.

“이 책은 오로지 기독교에 관한 책이며 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비판한 책이다... (내 경험을) 일반화시키려고 .....”<sup>27)</sup>

“그러나 이런 모든 느낌은 틀린 것이다. 이 책의 유일한 장점은, 이 책이 바로 그 느낌들 모두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만심에서가 아니다. 그 느낌들이 틀린 것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다. 만약 나의 청년 시절이 좀더 현명하고, 좀더 윤리적이고, 조금 덜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런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 결국은 기만을 당했으며, 정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본 결과 모두가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거리가 못된다. 경험을 하고서야 아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어쨌든 알게 되었으니, 현명한 독자들은 이 바보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길 바란다.”<sup>28)</sup>

“나는 히브리어 학자도, 고등비평가도, 고대역사가도, 고고학자도 아니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마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학생들끼리 더 잘 풀 수 있는 경우와 같다..... 나는 아마투어로서 시편을 읽으며 부딪쳤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평신도들과 나누고 싶다.”<sup>29)</sup>

“끝으로 곧 독자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은 소위 말하는 변증적인 작품이 아니다. 나는 이 책의 어디에서도 안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는

27) 『순례자의 귀향』, p.31.

28) 위의 책, p.21.

29) 『시편사색』, pp.7-8.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믿고 있거나 이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불신앙을 보류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사람은 항상 진리를 변호만 할 수는 없다. 진리가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자라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sup>30)</sup>

---

30) 위의 책, p.14.